

법정문화도시 시민보고회

익산시, 시민·전문가·행정 등 참여한 토론회 진행

익산시가 법정 문화도시로써 지점됨에 따라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시는 29일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기념 '익산 문화도시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통합 전수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시민추진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도시 추진경과 보고와 시민추진단 활동과정을 공유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시민보고회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예비사업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화도시 활동 과정 발표를 통해 시민추진단의 활동가들이 직접 사

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실행과정과 소감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발표에서 이진홍 익산희망연대 사무국장은 '문화도시 삼삼오오'를 추진하며 시민들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하고 실행 지원하는 시민주체 플랫폼 운영과정을 '문화마을 2' 전승훈 코디네이터는 익산지역 29개 읍면동 고유의 역사 문화 콘텐츠 발굴하는 과정을 공유했다.

유명선 예술컴퍼니 아트문 대표는 문화공간을 매개로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장민지 청년예술가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주민과 소통하는 전시기획 과정을 각각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한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됐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익산시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 간판 개선사업 완료

익산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한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중앙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5억을 투입해 청인동 익산역에서 평화동 터미널 구간을 대상으로 '별창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간판개선을 통해 거리의 변천사를 그대로 담아냈다고 밝혔다. 익산역에서 터미널 구간을 대상으로 '별창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동기 여성가족과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군산시가 양육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나운동 늘푸른도서관 내)과 신규개소하는 2호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이후 시는 지속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협조로 노후화되고 제각각이던 간판은 모두 철거되고 우리 지역과 해당업소의 특성에 맞는 예쁜 간판으로 새로 설치됐다.

특히 구도심의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역 주민과 건물주·입주업소 등은 변화된 모습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현재 황등, 부송동 일원, 평화동 공구거리 복측 등 많은 사업이 선정돼 내년 완료 예정이다.

전민호 도로과장은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깨끗한 거리문화 조성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주민자치적 돌봄공동체 형성 통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군산시는 내동동 오션클래스 아파트의 주민유휴공간인 작은도서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21년 상반기 여가부 산하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 사업에 선정돼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 약 6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했으며 운영비 일부는 매년 국도비의 지원을 받게 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자치적 돌봄공동체 형성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도서

와 장난감 등 80여종 이상이 비치됐으며 초등 상시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돌봄장소로 활용된다.

29일부터 31일까지는 초등돌봄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에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시설을 개방해 이해를 돕고, 겨울방학 중 이용아동 모집 등 문의사항은 063-445-7300으로 하면 된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회원들이 등교하는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그림 돌봄 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등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개방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겨울방학 이후 이용가정을 별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동기 여성가족과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불어 군산시가 양육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나운동 늘푸른도서관 내)과 신규개소하는 2호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이후 시는 지속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 조성할 방침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명품행정 전북도 등 17개기관 42개 부문 수상

익산시가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익산시민의 우수한 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특히 시는 공직창원 기강과 코로나 19에 대처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익산형 경제·복지·환경 정책 기후변화 대비 신기술 농업추진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정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전북도, 공공기관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총 42개 부문을 수상하며 4억4백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먼저 시는 자치 행정·경제 부문에서 최우수 수상기록 등을 세우며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우뚝 서고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시단위 전국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의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 대응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 서비

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지원우수단체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우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한편 익산시는 보건·복지 부문에서 다관왕의 수상기록을 세우며 해당분야 선도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임피지구 체비지 단독주택용 매각 완료

군산시는 올해 매각 추진 중인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 28획지 전부를 매각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원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임피 토지구획정리지구 소필지와 사업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용지(1획지)를 단독주택용지(28획지, 15,079.5㎡)로 조성했다.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는 민경강 및 봉황산 등 자연자원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생활 최고의 주거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전

원주택 및 기숙사 등 건립이 가능하다.

매각대상지인 임피지구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경쟁 입찰매각을 추진하여 20획지를 매각했고, 10월과 12월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잔여 8획지를 매각했다.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이며 전체 28획지가 모두 매각됐다.

시 관계자는 "임피지구 단독주택용지는 인근에 호원대학교, 구)임피역이 있고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입주민의 최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역 소식통

군산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착공

군산시는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암분구(월명동, 중앙동, 삼학동, 흥남동, 신평동)에 총사업비 48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해 온 12월 착공했으며, 오수관로신설 L=29.8km, 우수관로개량 0.6km, 배수샬리 3,144구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각 가정마다 정화조가 폐쇄되며 분뇨수거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장에인체육회 시상식 비대면 개최

익산시장에인체육회(회장 정현 울익산시장)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체육상 시상식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익산시장에인체육회 주최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에 급증에 따라 당초 시상식 계획을 취소하고 비대면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수상자만 참석할 가운데 표창장 및 표창패 개별 전달했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전북도장에인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분들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지사표창상에는 자원 봉사에 힘쓴 김경미 의 3명이, 전라북도장에인체육회장표창에는 김관기이 각각 수상했다. 익산시장표창으로 공로부문 도상욱(골프 부회장)의 4명, 유공부문 김정열(이사)의 4명, 봉사부문 양진숙의 4명이 수여했다. 특별공로패는 유재구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을 비롯해 이해석(부회장), 김희진(봉사단장)에게, 특별감사패는 이화용(자문위원), 이병창(내은병원장) 김강웅(스포츠클럽회장)에게 전달됐다.

/*익산=이득훈 기자